

민주, 내달 원내대표 경선... 물밑경쟁 '예열'

김동철·우윤근·전병헌 등 5~6명 거론

박기춘 현 원내대표 재출마 가능성 높아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를 향한 물밑 경쟁이 조금씩 닦아오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선출된 박기춘 원내대표가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잔여임기만 채우도록 돼 있어 5월 둘째 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원내대표 후보군은 3선급을 중심으로 5~6명 가량이다.

우선 박 원내대표의 재출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의 임기가 4개월 여에 불과한데다 새 정부 출범 전후 시기에 특별한 실책 없이 원내를 이끌어왔고 자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 측은 "구원투수 역할을 원만히 했다고 평가한다"며 "박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한 것은 아닌지만 주변에서 다시 도전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의 김동철 의원이 출마를 고민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경선에 나왔지만 1차 투표에서

떨어졌다. 비주류 세신과 의원과 손학규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이 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아직 결심을 못 했다"면서도 "새롭고 생산성 있는 여야 관계를 만들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민주당의 급선무"라고 말했다.

광양의 우윤근 의원 역시 경쟁 출마를 적극 검토 중이다.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성향으로, 초재선그룹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민주화 성과를 많이 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균형과 합리를 중시하며 수권정당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며 "스마트하고 콜한 원내 정당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이 출마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의장을 맡는 등 전략과 정책통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지난해 5월 경선 때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 전 의원은 정세균 상임고문 계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그동안 경험과 정책적 역량을 통해 127명 의원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내고 민주당을 부활시키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본인은 "상임위원장을 끝내고 나서 생각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5·4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로 거론되는 신계륜·추미애 의원이 원내대표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당사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 대표 경선 출마 여부를 매듭짓고 나야 원내대표 도전 여부를 고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당 일각에서 5월 둘째 주인 원내대표 경선일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5월4일 당 대표를 선출한 뒤 곧바로 원내대표 경선을 할 경우 너무 빠듯하다는 것이다. 한 당직자는 "원내대표 선거 운동에 2주가량 시간을 준 전례를 감안하면 중화순계 선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용섭 "당 혁신 필요성 공감"

박원순 서울시장 만나

민주통합당의 5·4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은 지난 29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갖고 당 혁신 등에 대해 공감을 나눴다.

두 사람은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당이 살길은 이번 전대에서 혁신적 당 대표를 선출,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강도높은 혁신을 통해 국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의 의원 측은 전했다.

박 시장은 "정치권이 기록권을 내려놓고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면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도부 교체와 관계없이 당무 조직과 업무가 안정성을 유지하고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국민과의 온라인 소통 기능 강화를 위해 당 대표와 별도로 '온라인 대표'를 임명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대표가 되면 민주당의 조직과 시스템을 권력정치의 '선거운동 조직'에서 생활정치의 '봉사 조직'으로 전면 수술하겠다"며 "SNS 정당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었던 박 시장은 당시 국제청장이던 이 의원과 함께 국제청 산하 세정혁신추진기획단의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인연이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한데 이어 27일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28일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잇따라 찾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달라진 재보선...투표율 높아질까

사실상 3일 동안 투표 가능 직장인 참여로 투표율 늘듯

4·24 재보궐 선거에 처음 도입된 통합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사흘간 치르는 효과를 낸다.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양일간 부재자 투표가 가능해져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려면 선거 당일 포함 3일 중 하루를 택해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전국 유권자 정보를 전산화해 하나의 명부로 통합·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인해 선거일 전 이틀에 재보선이 치러지는 전국의 어느 부재자투표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각 구·시·군별로 선거인 명부를 관리했기 때문에 부재자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하고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교부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재보궐 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소가 따로 설치되지 않아 부재자투표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거소투표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 선거부터는 읍·면·동 단위로 부재자투표소가 1개씩 설치된다. 이번 재보궐 선거의 부재자투표소 운영 기간은 19일(금)~20일(토)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이다.

특히 부재자 투표 마지막 날인 20일은 토요일인 만큼 직장인의 선거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역대 저조했던 재보궐 선거 투표율 상승이 기대된다.

2000년 이후 치러진 23번의 재보궐 선거 투표율 평균은 33.81%로 낮은 편이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나 선거구 밖에서 근무하는 군인 등은 부재자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 오는 5월~9월 사이 주민등록지 담당 구·시·군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을 뽑는 4·24 재보궐 선거는 총 11개의 선거구에서 실시된다.

국회의원 선거는 ▲서울 노원병 ▲충남 부여·청양 ▲부산 영도이며, 기초단체장 선거는 ▲경기 가평 ▲경남 함양, 광역의원 선거는 경기 가평1,2·경북 경산2·경남 거제2, 기초의원 선거는 서울 서대문 마·경기 고양시 마·경남 양산시 다에서 치러진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24 재보궐선거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후보들이 31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 불암산 둘레길 전당대회에서 열린 불암산신제에 참석, 지리를 함께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정의당 김지선, 새누리당 허준영, 통합진보당 정태홍, 무소속 안철수 후보. /연광뉴스

안철수, 지지율·단일화 '딜레마'

여 후보와 오차범위 접전...아권연대엔 비판론도

4·24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예상 밖에 부진하게 나오자 지지 세력 재고고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 26일 리얼미터가 노원병 유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 95%, 오차 ±3.7%포인트)서 안 후보의 지지율은 38.8%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32.8%)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안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에 안 후보 측은 "원래 쉽지 않은 선거였다"며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답답해 하는 상황이다. 특히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 선거 특성상 정당 후보들이 그동안 지역에서 닦아 놓은 조직의 영향력을

비롯해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이동성 후보,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 통합진보당 정태홍 후보 등이 아권 상황의 표를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새 정치로 정면 승부하고 싶다"며 아권 후보 단일화에 일단 선을 그었지만, 지지율이 눈에 띄게 오르지 않는다면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 분산을 우려한다면 다른 아권 후보와 연대를 모색해야 하지만 단일화를 시도하는 경우에 '정치공학적 단일화'라는 비판론이 적면라도 더 만나기 위해 먼저 찾아가는 것이 달라진 점이다.

안 후보 측은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총동원해 지역 유권자들을 찾는 '지인 찾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아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딜레마도 안 후보가 해결할 숙제다. 안 후보를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기정 "남북 총리회담 개최를"

한반도 평화 핵심의제 제안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강기정 의원은 지난 31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남북 총리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 한반도 안정, 포괄적인 남북대화 및 협력을 3대 핵심의제로 하는 남북간 총리 회담을 개최하자고 밝혔다.

그는 회담의 형식과 관련해 "남북간 충돌의 당사자인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이나 국방장관 회담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공간이 있고, 그렇다고 대북특사를 파견해 비공개 접촉을 추진하는 것도 자칫 불신과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현시점에서 총리 회담이 가장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리 회담 추진에 앞서 남북 모두 군사행동 종료를 천명하고 남북 간 핫라인을 즉각 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민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 영수회담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치인 찬조행위 우려

행락철 예방활동 강화

도선관위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봄철 관광·행락철을 맞아 현직 정치인을 비롯한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의 지역내 각종 모임 및 단체에 대한 찬조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1일부터 한 달간 집중 예방활동에 돌입했다.

전남도 선관위는 이 기간 중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상자별 직접 방문·면담활동 및 인터넷·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선거법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지역 내 입지를 넓히기 위해 각종 모임·단체에 대한 찬조행위 예방을 위한 개연성이 있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황수집 및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집중 예방활동에도 고의적으로 찬조행위를 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에 이르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지역 주민들도 찬조를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 · 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한다.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울체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불을 뿜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 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인다라한의원 원장 권준환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뻣뻣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자기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으로 대처해야 할 질환이다. 과도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격이다. 단지 증상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

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마혈,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본다.

인다라한의원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www.indara.co.kr (광천시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20106-중-9819호 [광고]

NPL경매

- ▶ 배우면서 투자가능
- ▶ 실전투자 사례교육
- ▶ 1대1 개인지도
- ▶ 교육비 550만원

(주)오현경제 H. 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